

“여수 음식·가격을 한눈에”

모바일 앱 ‘여수맛’ 인기...현재 1000여 개 음식점 등록해 메뉴별 검색·모범음식점·위생등급·착한가격 업소제공

매년 1300만 관광객이 찾는 해안관광도시 여수시가 바가지요금 근절과 음식 업계 간 가격경쟁 유도를 위해 개발한 모바일 앱 ‘여수맛’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는 800여 개 업소가 ‘여수맛’ 앱에 가입 하였으나, 현재는 1,000여 개 업소가 등록돼 운영 중이라는 것. 지난해 10월 출시된 ‘여수맛’은 음식점 메뉴와 가격, 영업시

간, 주차시설 등 각종 음식 정보와 가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메뉴별 검색,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업소, 착한가격업소는 물론 여수10미 취급음식점, 시민할인 정보 등을 볼 수 있어 어느 음식점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권역별로 음식점을 검색할 수 있어 관광객에게 더욱 유용하고 설치해 휴대폰 플레이스토

어에서 ‘여수맛’ 검색 후 설치하면 된다. ‘여수맛’에 등록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앱에서 직접 등록과 변경이 가능하며, 혼자서 등록이 어려운 경우 식품위생과(☎061-659-4392)로 연락하면 조사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비스 확대와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지난 13일 보성군수실에서 LHI사업설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성군-LHI, ‘농촌 유토피아사업’ 협의체 구성 ‘귀농·귀촌형 공공주택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보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I)는 지난 13일 보성군청에서 농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을 위한 ‘귀농·귀촌형 공공주택사업’ 협의체 구성 협의를 진행했다. ‘귀농·귀촌형 공공주택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마을쇠퇴와 농촌 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보성군은 관내에 적합지를 선정하여 20호 내외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방향은 임대주택과 단지 내 기반시설은 LHI가 공공기관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입주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경작지, 일자리 등은 보성군

이 제공하는 사업으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신규사업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공공주택사업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보성군 초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LHI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였다. 보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농어촌의 주거, 일자리 등 농어촌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한편, 보성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을 통해 문덕면 소재지 일원에 ‘귀농·귀촌형 공공주택사업’을 유치했으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고흥군, 드론활용 ‘농작물 무방부제’ 서비스 총 94농가 100ha 면적...고령 등 부족농가 대상 실시

고흥군은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령 등 관내 노동력 부족 농가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무방부제 서비스를 지난 8월초부터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무방부제는 본격 영농철을 맞아 16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 총 94농가를 대상으로 100ha 면적을 실시하였으며, 농가가 희망하는 날짜에 권역별로 팀을 나누어 동시에 농약 및 비료살포 작업을 진행하였다. 드론은 범세를 직접 파종하고,



비료와 제조제 살포부터 병해충 방제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방제인력을 80%이상 줄여 영농비 부담을 덜어 주고 농약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농협, 섬진강 범람 피해농가 빠른 지원 눈길...방제·농기계 무상점검 등

순천농협(조합장 강성태)은 최근 집중호우로 섬진강 인근의 농경지, 하우스, 축사 등 침수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였다. 순천시 황전면 용림지역의 농가는 이번 범람으로 농지 약 20ha, 하우스 10동, 축사 1동, 농기계(트랙터, 경운기) 등이 완전침수 피해를 입었다. 순천농협은 신속한 피해현장점검을 통하여 수도작 방제작업과 농기계의 수리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지난 12일부터 드론 방제기를 동원한 병해충 방제와 침수농기계의 무상점검·수리 등을 실시함

로 침수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민을 위한 발 빠른 지원이 돋보였다. 또한 지난 8일 피해상황을 점검하던 중, 섬진강 범람으로 소 43마리가 있는 축사가 물에 잠겨 위험하다는 급박한 소식을 전해 듣고 강성태 조합장을 비롯한 농·축협 임직원이 신속한 현장지원으로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소 40마리를 구하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어 주위로부터 미담이 되었다. 한편, 순천농협 여성조직은 침수피해 주택에 대한 자원봉사를 통해 물에 잠긴가전과 가구 등 함께 정리 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의 마음을 나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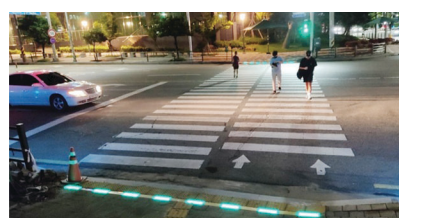
무관중 ‘2020 아고라 순천 미리 콘서트’ 개최

순천문화재단, 내달 2일까지 순천문화재단(이사장 허석)은 16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일까지 총 11일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공연장에서 무관중 콘서트 시즌2 ‘아고라 순천 미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공연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아고라 순천 전문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오디션을 통해 2020 아고라 순천에 선정된 예술

팀 중 전문예술팀 63팀과 생활예술팀 67팀 총 482명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하며 미리 들려드린다는 컨셉으로 준비된 이번 ‘미리콘서트’는 오프라인 공연 재개가 기약 없는 상황에서 아고라 순천 전반기 공연을 하나의 기획공연으로 묶어 각 공연팀별로 1시간의 기획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은 영상으로 편집해 유튜브 순천문화재단 채널을 통해 9월 중순부터 방영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광양읍 칠성초·중마동 중동초·시청 사거리 3개소

광양시는 스몸비족의 보행안전을 위해 지역 내 처음으로 스쿨존, 시청사거리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했다. ‘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줌비의 합성어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걷는 사람을 일컫는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앞 접지블록 주위에 LED 조명 바닥력을 설치해 스마트폰을 보느라 전방 주시를 하지 않는 스몸비족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행 보조장치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시는 1억1천9백만 원(도·시비)을 투입해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광양읍 칠성초등학교, 중마동 중동초등학교, 시청 사거리 3개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전국 최대 주산지

보성키위

보성물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물 검색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TYuYkSbhc69PcPyQ

※ 매일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